

중고같은 신입입니다



고현석 1992년 (30세) | 남 | 구직중

✉ bigfoot7774@gmail.com

☎ 010-7774-7996

☎ 010-7774-7996

🏠 (47591)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0번길

학력사항	경력사항	희망연봉	희망근무지/근무형태	포트폴리오
대학교(4년) 졸업	신입	회사내규에 따름	부산전체 정규직	https://xasquatch.net

학력 최종학력 | 대학교 **4년** 졸업

재학기간	구분	학교명(소재지)	전공	학점
2016.10 ~ 2019.02	졸업	국가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(부산)	경영학과	4.29 / 4.5
2011.03 ~ 2011.07	중퇴	동양미래대학교 (서울)	반도체전자과	-

경력 신입

대외활동

기간	구분	기관/장소	내용
2017.07 ~ 2018.09	사회활동	(주) 케이티엔	연봉 3000, 거래처 매출 정산 담당, 기타 사무 출납 업무, 사무자동화
2019.02 ~ 2019.08	교육이수내역	아이티윌 부산교육센터	사물인터넷(IoT) 활용 안드로이드 자바 개발자 양성
2019.10 ~ 2020.08	사회활동	씨엘텔레콤	연봉 3600, 거래처 매출 정산 담당, 기타 사무 출납 업무, 사무자동화

보유기술

보유기술명/수준/상세내용
JAVA / 중하 팩토리, 싱글턴, 커맨드 패턴 등 기본 디자인패턴 활용 가능
Spring for Java / 하

프레임워크의 기능(AOP, DI, 트랜잭션 등)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MVC프로젝트 만들기 가능
Javascript + (HTML, CSS) / 중하 ECMA6 이전까지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웹사이트 디자인 및 기능(ajax, 유효성검사 등)구현 가능
MS Office Excel / 중 그래프 출력, 함수 활용, VBA 활용
MS Office word, 한글 / 중 문서작업
MS Office PowerPoint / 중하 몇몇 애니메이션과 효과를 활용해 입체적인 ppt자료 만들기 가능

포트폴리오/기타문서

파일 구분	파일명
포트폴리오	https://xasquatch.net

자기소개서

[자기소개 - 프로그래머입문 시작의 계기]

저는 KT 대리점 도매사무실에서 일했었습니다.
이 사무실의 인트라넷은 300억이 넘는 매출액 규모 대비 좋지 못했습니다.
모든 것이 엑셀에서 엑셀로 파일로 정리해서 파일을 보내고 받는 구조였습니다.
그 엑셀 중에서도 MS오피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만으로 모든 일이 처리해야 프로세스였습니다.
첫 직장 입사 3개월 차, 항상 같은 계산식을 매번 똑같은 엑셀 함수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싫증이 났습니다.

좀 더 빠르게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?

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엑셀에서 Alt + F11키를 누르면서 제 프로그래머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.

[성격의 장점 - 지름길을 잘 찾는 사람]

총게 말하면 진보적인, 안 좋게 말하면 귀찮음 일 수도 있습니다.
저는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의 지름길을 먼저 찾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.

Alt + F11키를 누르면서 당시 처음 VBA라는 용어를 듣고 접하게 되었고,
업무를 마무리하고 남들 퇴근할 시간에 혼자 남아 sub ~ end sub를 입력하며 구글을 검색했습니다.
약 한 달간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엑셀 매크로(+함수)로

업무 시간을 8시간에서 30분까지 단축해놓았습니다.

처음 업무에 매크로 도입했을 때 직접 구현해보고 실행되는 것을 보는 저도 놀라고,

동료 직원들도 모두 놀랐었습니다.

이 무렵 구글 검색을 하고 매크로를 만들면서 "생활코딩"이라는 오픈튜토리얼사이트를 알게되어 웹을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. 여기서 진로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퇴사 후 국비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.

학원에 다니면서도 다른 대리점에서 더 좋은 연봉으로 대우해줄 테니 오라고 면접 제의가 몇 번 왔었고 실제로도 좋은 대우를 받으며 1년 안 되게 더 근무했었는데 이때 Alt + F11을 눌렀던 제 지름길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

[성격의 단점 - 실패로 얻은 깨달음]

저는 저 자신한테는 한없이 냉정해질 수 있지만, 타인에게는, 특히나 주변 인물에게는 냉정해지기가 어렵습니다.

한 번은 국비학원에 다니면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국비학원을 수강하기 시작 몇 달 전부터 미리 생활코딩이나 유튜브 등으로 공부를 했던 터라 다른 수강생분들과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. 당시 다들 자바 서블릿 doget, dopost메서드를 배우고 있을 때 혼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.

팀 프로젝트를 하면 우선 역할분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스프링은 안 쓰기로 하고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데 개인별 역량을 생각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기 위해 Model, View, Controller 파트 별로 맡아서 하기를 팀원들에게 권유했습니다.

하지만 제 의견에 팀원들은 난색을 보였습니다. 이유인즉슨 팀 프로젝트에 본인의 기여도가 커야 취업에 유리한데 MVC 패턴 파트별로 분리해버리면 본인의 역량을 100%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저는 이때 취업이라는 공통분모에 공감해버렸습니다.

결국, 파트별로가 아니라 카테고리(?)별로 구현하자 하였고 팀원들의 깃을 병합할 때마다 매번 충돌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소통으로 인해 팀 프로젝트 발표 당일까지도 코딩하다가 망친 적이 있습니다.

지금 생각해보면 팀과의 협업에서 저의 이런 어리숙함이 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타당성에 뒷받침하여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보고 싶습니다.

[성격의 단점 - 지름길 찾다가 넘어지다]

국비학원을 수강하면서 수강자료는 이미 전에 다 보았던 내용이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들 자바 서블릿 doget, dopost메서드를 배우고 있을 때 혼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.

내가 먼저 시작했으니, 항상 앞에서 앞질러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학원이 끝나갈 무렵까지 무작정 스프링부트만 봤습니다. 하지만 스프링부트가 어떻게 해서 동작하는지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가 안 가고 어느 새인가부터 디버깅도 안 해보고 무조건 구글 검색부터 하게 되었습니다.

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프로그래머로서의 길을 잠시 보류하고 총 1년 6개월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며 짬짬이 다시 공부하여 지금 이렇게 첫 이력서를 쓰게 되었습니다.

[입사 후 포부 - 향 후 저의 방향성입니다]

현재 저는 TDD와 Git Conventional Commit에 관심이 있습니다. 입사하게 된다면 이 관심사를 더 공부할 예정이며 저의 단점은 죽이고 장점은 더 부각시켜, 회사의 훌륭한 드림팀이 될 수 있는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.

또한 무엇이든 새로 배우고 익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

이번에 저의 열정을 쏟아부어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도 만들어보았습니다.
꼭 한번 차근차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[포트폴리오 관리자용 계정아이디입니다]

github page
<https://xasquatch.net>

My Blog
<https://myblog.xasquatch.net>
[관리자 계정]
email : manager@xasquatch.net
password : 0123456789

위의 github page에도 많이 신경써서 준비해왔습니다.
먼저 한번 구경하시고 My Blog도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